

제7강 8문 인간의 자유의지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1. 자유란 그리고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정리인용)

자유란 어떤 목적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갖는 하나의 관계, 능력,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어떤 목적이라 함은, (1) 사람이 그의 의지로나 혹은 본성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행하고자 하는 목적 (2) 정의로운 법에 대한 두려움에서나 사람의 본성에 맞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 (3) 우리에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유익들을 누리하고자 하는 목적 (4) 우리의 본성에 합당치 않은 부담이나 결핍 상태를 견디는 데에서 놓임을 받고자 하는 목적

(A) 자유란, 속박과 비참함의 노예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 (B) 한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 다른 나라의 침범과 위협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C) 구원 얻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모세가 제정한 의식들로부터 자유한 상태 (D) 의지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것을 행할 능력이나 힘이 없을 수 있는 상태 (E)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으로서, 지성 있는 피조물의 의지의 질 혹은 의지와 일치하는 본성적인 상태 (F) 즉, 오성(Understanding, 지성)이 제시하는 하나의 대상을 전혀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능력 (G)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으로,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다.

원하고 원치 않을 능력 혹은 자유를 부여 받은 것이니 이를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선택의 능력은 선택 시에 지성이 행하는 판단을 따르거나 거부하는 의지 그 자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란 오성이 제시하는 하나의 대상을 전혀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원하거나 원치 않으며, 혹은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기능 혹은 능력을 가리킨다... 자의적인 것을 가리켜 자유롭다고 부르며, 또한 자의가 아니고 강요된 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리켜 자유롭다고 부른다. -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2. 하나님의 자유와 피조물의 자유의 차이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A. “이해”에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최소한의 무지나 판단의 실수가 없이 모든 일을 지극히 완전한 방식으로 친히 보시고 이해하신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스스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또한 모든 일을 다 알지도 못하고 언제나 동일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특정한 때에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정도만큼만 알 뿐이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많은 일들에 대해 무지하며, 또한 오류를 범하는 때가 많다. (마태복음 24:36, 다니엘 2:21, 이사야 40:13, 히브리서 4:13, 요한복음 1:9)

B. “의지”에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신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지배도 받지 않고 의존하지도 않는다. 한편, 천사들과 사람들의 의지들도 그들 자신의 행위들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과 섭리에 영향을 받고 그것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어긋나는 일은 아무 것도 행할 수가 없다. (시편 115:3, 다니엘 4:35, 창세기 24:7, 출애굽기 3:16, 사도행전 2:23, 사도행전 3:18, 사도행전 4:27, 28, 예레미야 10:23, 잠언 21:1)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조물들의 의지를 움직이시고 지도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신에 대상물들을 제시함으로써, 의지가 그 때에 오성(이해력)이 선하다고 판단하는 바를 선택하고 그것이 악하다고 보는 바를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C. “동시적 이해와 의지”에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불변하게 하시므로 영원 전부터 그 일들을 작정하셨고,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뜻하시고 죄악된 일들은 허용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들이 지극히 선하며 의롭고 지혜로우므로 그분은 절대로 그것들을 버리시는 일도 없고, 그것들을 교정하시거나 변경하시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사물에 대해 갖는 개념들과 판단들은 가변적이며 따라서 그들의 의지 역시 가변적이다. 사람들은 이전 같으면 뜻하지 않았을 일들을 뜻하며, 이전에는 기뻐하던 일들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뭔가를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그것들을 버리는 예가 많다. (민수기 23:19, 말라기 3:6, 로마서 9:22)

3. 타락 이전, 타락 이후, 중생 이후, 영화 이후 “자유의지 상태”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A. 타락 이전의 자유의지

사람의 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자유로이 선을 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방식으로 악을 택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받아 계속해서 선한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으나,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악한 상태로 기울어져 거기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B. 타락 이후의 자유의지

의지가 자유로이 행동하지만, 그러나 오로지 악한 것에게로만 이끌리고 그것만을 지향하며, 죄밖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종에 이끌리는 모든 경향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또한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를 향한 반감이 이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C. 중생 이후의 자유의지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의 경우와 같은 상태이나, 의지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본성을 새롭게 하였고, 지성 속에 새로운 빛과 지식을 밝히셨고, 마음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소원과 성향에 일치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의지를 효과적으로 기울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의지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뜻하는 능력을 회복하며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1)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들에게는 부패성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불완전하며 죄로 얼룩져 있다. (2) 중생한 자들이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들을 시험하시거나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려두기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동안 그들 스스로 내버려져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법은 없다.

D. 영화 이후의 자유의지

사람의 의지가 악이 아니라 선만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인간의 의지의 최고의 완전한 자유이며, 이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것이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다.